

自我의 表現으로서 物理的 環境의 아이덴티티에 관한 研究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주변의 환경은 우리들 자신 및 사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서 우리들 자신을 반영하고 있다. 환경은 그것이 어떤 개인이나 社會的 集團을 대표하는 것으로 의도되고 그렇게 知覺됨으로써 어떠한 의미를 갖게 된다. 環境이 주는 이러한 함축적인 의미는 그 主体者인 개인이나 집단으로 하여금 「아이덴티티」感(sense of identity)을 갖게 해 준다. 그것은 인간에 의한 環境의 措置가 갖는 가장 無形的인(intangible) 특질이지만 場所感과 環境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오늘날 都市環境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건설, 규격화된 住居地 「패턴」 등으로 인해 획일적이며 단조로운 환경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환경의 主体者인 인간의 존재가치나 중요성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환경에서의 「아이덴티티」 문제는 그것이 상실될 경우 초래될 수 있는 정신적인 혼란상태 즉 개인의 자존심의 손상과 더불어 집단에의 소속감을 상실하게 되고 나아가서 환경을 방치하거나 회피함으로써 환경으로부터 많은 불만감이 생기게 되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물리적인 계획가나 설계가들은 환경속에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만을 부각시키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그것을 실제로 이용하게 될 입주자나 사용자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욕구는 고려하지 않고 있거나 그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다. 환경에서의 이러한 「아이덴티티」 문제는 이들 이용자들의 입장이 부각되고 그들의 「아이덴티티」가 강조되는 개념이다. 그리하여 환경속에서 이용자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강하게 부각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환경으로부터 애착심과 자부심을 통한 만족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이덴티티」(identity)란 용어는 「윈홀쯔」(Emanuel Windholz)와 「휠라이트」(Joseph Wheelwright)가 臨床的 目的에서 「아이덴티티」의 위기(identity crisis)라는 말로서 처음 사용한 것으로 개인으로서의 同一性和 歷史的 連續性

朱 鍾 元

〈서울대 工大교수 · 도시공학〉

河 在 明

〈慶北大 工大교수 · 건축공학〉

을 상실한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自我 「아이덴티티」의 상실을 표현하고 있다. 「아이덴티티」라는 말이 처음 사용되었을 당시에는 으레히 「아이덴티티」 위기라는 말로 표현되어 거의 同意語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었다. 이러한 「아이덴티티」의 개념에 관해 처음으로 본격적인 연구를 한 사람은 저명한 心理學者인 「에릭슨」(Erik Erikson)이다. 그는 저서 'Identity-Youth and Crisis' 에서 「아이덴티티」에 관련된 제반사항들을 다루고 있으며 「아이덴티티」 개념에 대한 정의의 어려움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아이덴티티」란 주제는 그것에 관해 쓰면 쓸수록 한계와 성격이 애매모호한 용어가 되고 만다. 「아이덴티티」의 뜻은 여러가지 관계에 있어서의 이 개념의 不可缺性을 확립함으로써만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 생각된다.” 本 研究에서 「아이덴티티」란 用語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도 정확한 우리 말을 찾기가 어려웠을 뿐 아니라 번역을 한다면 원래의 의미를 조금이라도 손상시킬까 해서이다.

본 연구에서는 人間과 環境과의 양면적 관계를 다루는데 있어 自我心理學에서 사용되는 「아이덴티티」 개념이 環境計劃 및 設計분야에서 널리 사용됨에 따라 物理적 環境속에서 사용되는 「아이덴티티」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러한 「아이덴티티」가 環境속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게 되며, 또한 이들 「메카니즘」의 근본 요인이 무엇인가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서, 環境에서의 「아이덴티티」에 대한 연구는 심리적 차원에서의 연구가 그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실제로 物理적 環境의 설계에 있어 건축주나 이용자의 「아이덴티티」의 표출을 용이하게 해주어 環境에서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현재 우리들 주변환경에서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노출되고 있으며 계획이나 「디자이너」가 계획적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알아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앞으로 계속될 環境에 있어서의 「아이덴티티」問題 연구에 대한 序論的 研究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잠정적인 가설을 설정하였다.

- 人間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物理적 環境에 표현하려고 하는 것은 人間の 기본적 욕구이며 그러한 행위를 통해 人間은 環境속에서 만족감을 얻게 된다.

- 物理的 環境(建造環境)의 「아이덴티티」는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物理적 環境에 반영되어 나타나게 된 것이다.

- 物理的 環境의 「아이덴티티」 문제에 대한 연구는 人間과 環境과의 양면적 측면에 모두 관계한다.

- 人間の 自我表出 행위를 통해 物理적 環境은 「아이덴티티」를 갖게 된다.

- 個人과 集團의 「아이덴티티」의 구분은 人間の 自我表出 행위 가운데서 자아의 서로 다른 부분이 表出된 것이다.

◇物理的 環境속에서의 아이덴티티와 同一視의 의미

「아이덴티티」(identity)란 말은 라틴어의 'identitas'에서 유래한 것으로 “전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그 사람이 틀림없는 본인이다.”, “그것의 자기자신”, “정체” 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보통 이 말은 心理學에서는 同一性, 主体性, 自己定義, 正體感 등으로 번역되어 있으며 그것이 環境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 때는 ‘獨自性’, ‘正體性’, ‘個別性’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 말은 「에릭슨」(Erikson)이 精神分析學的 自我心理學의 기본개념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이후로 論理學이나 哲學의 영역을 넘어 精神醫學, 心理學, 社會學, 教育學과 같은 人間에 관한 모든 학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나는 어느 학교의 무엇을 전공하는 학생이다”. “나는 이 단체의 회원이다.” 등과 같이 「아이덴티티」는 ‘나’와 동일한 어떠한 사실을 의미한다. 이 경우 그저 그렇게 생각하거나 때때로 그러한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밑바탕에서 항상 무엇을 하던 그것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될 정도로 개인에게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으며 동일성과 연속성이 있는 ‘이것이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이다.

「아이덴티티」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용어로서 동일시(identification)라는 말이 있다. 同一視는 타인의 속성과 特質을 모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同一視는 내면화(introjection: 다른 사람의 신념과 가치관을 자기의 것으로 돌리는 것)의 결과인데 아동이 父母의 屬性을 내면화시켰을 때 부모를 동일시했다고 말한다. 「히틀러」의 전성시대의 獨逸關係들 중 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와 같은 모습 즉 팔장을 끼고 있는 자세를 취한 사진이 남아 있다고 한다. 이러한 흉내는 의식적으로 본받고자 한 것이 아니라 마치 자기가 그 사람 ‘인양’, ‘인척’ 행동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동일시이다.

이러한 人格形成過程에서 나타나는 동일시는 유희적이며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에 비하여 「아이덴티티」는 연속성을 가지며 개인의 독자성에 대한 의식적인 감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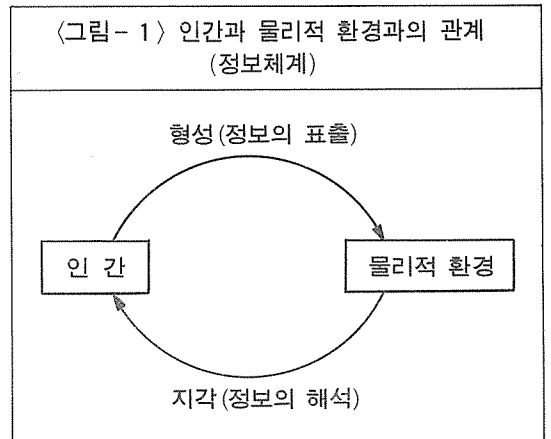
環境에 있어서도 「아이덴티티」와 동일시의 현상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먼저 「아이덴티티」의 경우를 살펴 보면 「린치」(Kevin Lynch)는 그의 저서인 ‘The Image of the City’에서 환경적 「이미지」는 세가지 요소 즉, 「아이덴티티」(identity), 구조(structure) 그리고 의미(meaning)들로서 분석될 수 있는데 실제에 있어 이들은 항상 함께 나타난다. 그리고 여기서 「아이덴티티」는 다른 사물과 구분되는 것, 즉 분리되는 實體(separable entity)로서 인식되는 것을 의미하며 個別性(individuality)이나 單一性(oneness)의 의미를 갖는다고 한다. 그가 의도하는 「아이덴티티」는 <그림-1>에서 나타난 인간과 물리적 환경과의 양면적 관계 가운데서 물리적 환경이 인간에게 전달해 주는 「이미지」가 갖는 특성을 말하고 있다.

또한 「기버드」(Frederick Gibberd)는 近隣住區設計의 美的인 問題에 대해 언급하면서, 어떤 지역에 물리적 「아이덴티티」(physical identity)를 준다는 것은 다른 장소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과 구분될 수 있는 독특한 특질을 그 장

소에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서 그는 都市地域을 分散道路(distributor roads)로서 小規模地域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아이덴티티」를 얻게 된다고 했다. 「기버드」가 의미하는 「아이덴티티」는 人間과 物理的 環境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物理的 環境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활동 가운데서 어떠한 행위가 그러한 행위가 반영된 환경으로부터 독특한 무엇이 인간에게 되돌아 올 수 있도록 하는, 환경에 관한 人間の 操作的 側面이 강조된 것이다.

「린치」(Lynch)나 「기버드」(Gibberd)는 모두 物理的 對象에 관계되는 「아이덴티티」를 생각하고 있으며 인간과 물리적 환경과의 양면적 관계에서 서로 다른 측면에서 「아이덴티티」를 설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아이덴티티」는 물리적 환경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의 속성이 물리적 환경에 반영되는 것과 반영된 물리적 환경이 다시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이미지의 두가지 모두에 관계되고 있다. 특히, 「기버드」(Gibberd)의 경우는, 空間의 분리를 통해 얻어지는 지리적 「아이덴티티」와 영역적 「아이덴티티」 개념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의 「아이덴티티」란 인간이 형성한 환경이 나타내는 특성들로 인해서 그것이 다른 대상들과 구분될 수 있을 때 도출되는 개념으로서 그 나름대로의 連續性과 單一性 또는 獨自性을 가지며 정지된 한 視點에서 볼 때는 동요되지 않는 不變性을 나타낸다. 그러나



「아이덴티티」는 시간과 더불어 物理的 環境이 變化함에 따라 變化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環境의 「아이덴티티」는 자연상태의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이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 環境을 계획하고 조작함에 따라 나타나는 建造環境(built environment)이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메세지」(message)가 위주가 되어 나타나게 된다. 즉, 우리가 環境에 표현 하는 많은 「메세지」들 가운데서 우리 자신에게 보내려고 의도한 「메세지」들로부터 나타나는 것이다.

결국 環境의 「아이덴티티」도 인간이 知覺하는 것이며 인간들은 이러한 「아이덴티티」를 環境속에서 찾게 됨으로써 만족감을 얻게 되고 아울러서 環境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되며, 環境이 주는 「메세지」의 양이 많고 독특할 수록 「아이덴티티」는 더욱 강력하게 부각되는 것이다. 環境의 「아이덴티티」란 말도 실제로는 우리가 環境에 대해 갖게되는 「아이덴티티」를 말하는 것이며 이러한 「아이덴티티」가 불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면 개인의 자존심을 손상하게 되며 아울러서 집단에의 所屬感を 잃게 되어 중국어 가서는 心理的인 混亂狀態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와는 달리 環境에 있어서의 同一視問題를 강조하고 있는 학자들도 있다. 都市民의 行態에 관한 연구에서 나타난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생활에 만족감을 주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住居地域 環境과의 同一視라고 했다. 여기서 언급하는 동일시란 居住者들의 특성과 住居地의 視覺的 「이미지」 사이의 일치감을 창출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居住者들은 그들의 環境과 친밀해질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된다. 만약 이러한 일치감을 얻지 못할 경우 거주자들은 외로움(loneliness), 격리감, 그리고 社會的 接觸의 결핍을 초래하게 되어 環境과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상실하게 된다.

여기서 나타난 바와 같이 環境에 있어서의 同一視 問題는 사람들의 人格形成 過程에서 나타나는 동일시와는 다소 相異한 면을 보여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격형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동일시가 人間과 人間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行爲나 意識에 그 초점이 주어진다면, 環境에서 동일시의 문제는 어떠한 人間 또는 集團과 객관적인 環境이 구분되어 있을 때, 이 두 요소를 결합시킬 때 關連되는 인간의 의식수준에서 나타나는 문제이다. 즉 특정집단을 위한 새로운 環境을 조성하거나 기존의 環境을 재조정할 때 특정집단의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環境을 조성해 주는 문제로서 環境의 「이미지」와 住民들과의 일치감 또는 住民들의 環境에의 친밀감이나 익숙함(habituation)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環境과의 동일시를 추구하는 행위도 文化的인 行爲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즉 住居環境에 있어서 住民들에게 孤立感을 줄여 주고 受動性과 文化的인 「아이덴티티」의 상실을 줄일려면 空間과 利用者들 간의 文化적인 관계에서 보여지는 社會적인 결합이 필요한 것이다.

결국 環境計劃에 있어서는 앞에서 언급한 「아이덴티티」 즉, 環境의 특수성 또는 독자성에 관한 문제와 주민들의 環境에의 친밀함, 즉 동일시에 대한 문제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개인이 소속되어 있는 전체環境은 이들 개인들로 이루어진 집단의 공통된 「이미지」를 반영함으로써 同一性(identification)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 각각의 개인들은 이러한 環境속에서 獨自的인 個別性を 확보함으로써 개인의 「아이덴티티」를 성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집단의 共通的 「이미지」와 개인의 「아이덴티티」가 전혀 異質的인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關連성을 갖고 있으면서 독립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文化的인 要素로서 결합되어질 수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아이덴티티의 形成

「에릭슨」은 「아이덴티티」의 복잡성(complexity)을 설명하면서 그 形成過程에 대해서 압축시켜 다음과 같이 記述하고 있다.

“心理學的 用語를 빌린다면, 「아이덴티티」의

形成은 同時的인 反響(simultaneous reflection)과 觀察(observation)의 과정을 취하는데 이 과정은 精神的 機能의 모든 수준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과정에 의하여 개인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방식에 비추어 자신을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들 자신들과 그들에게 의미있는 類型(typology)과 비교하여 어떤 사람을 판단한다. 한편 개인은 자신을 판단하는 다른 사람들의 방식을 판단하는데 이 때의 기준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또한 자신과 관련된 유형들과 비교하여 자신을 어떻게 知覺하는지- 자신이 자기 자신을 知覺하는 방식-가 기준이 된다. 결국 사람들은 자신을 판단하는 準據로서 다른 사람들의 判斷方式를 사용하며 다른 사람들의 판단방식을 판단 하는 기준으로는 자신이 자기 자신을 知覺하는 방식이 그 기준으로 이용 된다는 것이다. 다행히도 이러한 과정은 동시에 이루어지며 대부분 無意識的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그러나 「아이덴티티」의 形成은 대인관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社會와 그 環境도 「아이덴티티」의 類型을 산출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일본사람들과 다르게 建築專門家들은 一般利用者들과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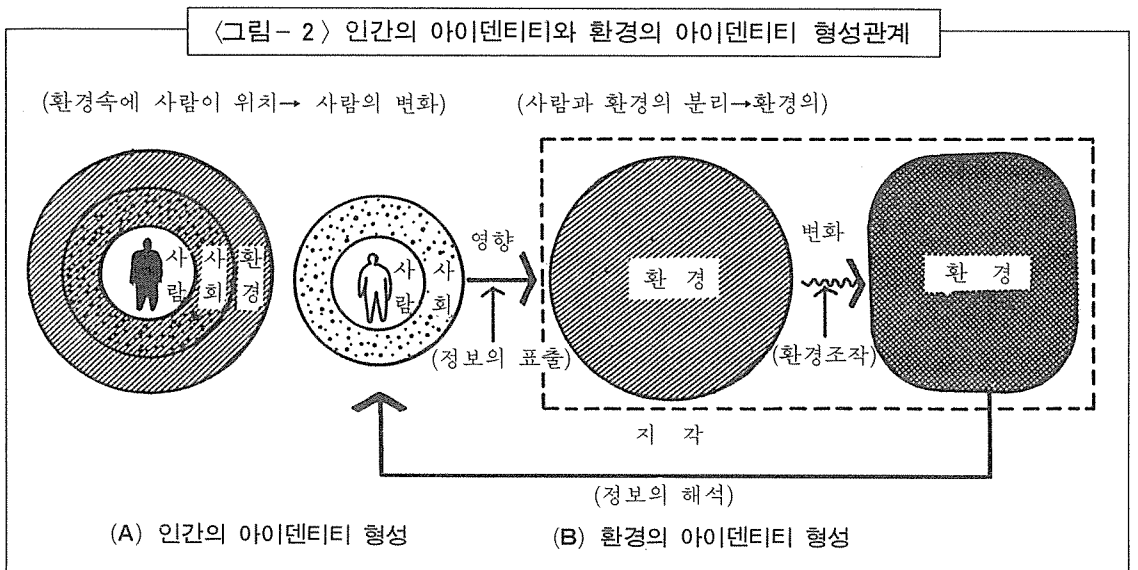
「베르거」(Berger)와 「루크만」(Luckman)은 “「아이덴티티」는 個人과 社會 사이의 辨證法的인 관계로부터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것은 전적으로 자체적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들의 知覺內容과 다른 사람들로 부터의 環流作用(feed back)의 산물이다”라고 했다.

「와너」(Warner)와 같은 社會學者는 미국인들의 생활에서 나타나는 社會的 階層間的 차이와 더불어 住宅과 近隣住區의 차이에 대해서 집중적 연구를 하였다. 그는 각 개인들은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文化的 素材들로부터 나타나는 「아이덴티티」들을 시험하게 되고 적절한 表出行爲를 통해 그들을 보증하며, 만약 자신들의 表現이 성공적인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 다른사람들이 그것을 더 이상 인정해주지 않거나 그들 자신들의 내적인 衝動과 一致하지 않게 되기까지는 그러한 표현들은 자신들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해 주는 것으로 보여지게 된다고 했다.

「에릭슨」(Erikson)이 처음 「아이덴티티」에 대해 언급 하였을 때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였다. 특히 그는 사람에 있어 性格發達의 단계를 8 단계로 나누고 그중 5 단계(12-18세)를 「아이덴티티」가 형성하기 시작하는 단계로 보았다.

이단계는 보통 사춘기에 해당하며 자신이 누구

〈그림-2〉 인간의 아이덴티티와 환경의 아이덴티티 형성관계



인가 또는 自我正體의 本性이 무엇인가에 대해 알고자 하는 시기로서 자기자신을 분명히 하기 위해 많은 正體感을 시도한다고 했다. 이 시기에는 부모세대에 대한 비판과 ‘主體性’, ‘自立性’, ‘實存’ 등의 문제에 대해 보다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청년들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속에서 많은 役割論的인 自我 즉 ‘...로서의 自我’를 선택적으로 시도하므로 「아이덴티티」의 형성기라고 하겠다.

그러나 청년기로부터 성인이 되면 이제는 더 이상 役割論的인 自我를 實驗的으로 선택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아이덴티티」를 선정 하게 된다. ‘이것이 정말 자기다’라고 선택한 ‘...로서의 자기’에 자기를 지탱하고 環境의 世界와 그대로 결합되는 것- 완전한 「아이덴티티」의 성립-이 바로 社會的인 成人의 탄생인 것이다.

따라서 사람의 「아이덴티티」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접하고 있는 사회를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사회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통해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와 환경속에서- 습득되는 것이다. 반면에 物理的 環境의 「아이덴티티」는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물리적 환경에 반영되어 그 物理的 環境이 독특한 特質을 갖게 될 때 그 환경이 「아이덴티티」가 있는 것으로 인식돼지는 것이다. 즉 환경의 「아이덴티티」는 〈그림-2〉에서 처럼 환경이 사람과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사람이나 사회가 이러한 환경에 情報를 表出하게 되면 환경은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러한 변화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이 知覺하는 물리적 특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에 「아이덴티티」는 개인과 사회, 그리고 環境과의 相互作用속에서 나타나는 것으로서 그 내부에는 복잡한 「메카니즘」이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自我의 表現으로서 環境의 아이덴티티

인간과 환경과의 관계에 대한 복잡한 「메카니즘」의 하나로서 인간의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환경에 반영되는가를 살펴봄으로써 환경에 있어서의 「아이덴티티」를 좀 더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간은 가장 기본적인 原型(archetype)인 自我를 이해하고 그것에 구체적인 실체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데 있어 자신과 가까이에 있는 주변에서 의미있는 物理的 形態나 象徴物을 선택하게 된다. 自我를 표현하기 위해 먼저 인간은 가장 의식적으로 自身の 身體를 선택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自我의 外面的인 表現의 對象인 동시에 가장 가까운 表現對象이 되기 때문이다. 이 보다는 다소 순위가 낮지만 인간은 흔히 자아를 상징하고 표현하기 위하여 住宅을 선택 한다. 住宅에 自我를 표현함은 정신적인 「메세지」가 自我로부터 自我의 客觀的인 象徴物로 이동해 감을 말한다. 그 결과 住宅은 自我의 性格을 露出시키게 되는데 이는 自我의 「메세지」가 객관적인 상징물로부터 다시 自我로 되돌아옴을 말한다. 住宅 다음으로 인간은 자기가 居住하는 마을에서 부터 近隣住區, 나아가서는 都市에 이르기까지 인간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속에 자신을 반영하려 한다.

心理學者인 「칼·융」(Carl Jung)은 인간의 성장·발달은 갈등의 해결이 目的이 아니고 成就, 成熟, 自我實現(self-actualization)을 추구하고 있다고 보았다. 자아실현이라는 말은 원래 「융」(Carl Jung)이 처음 사용하였으나 人本主義 心理學者인 「마슬로우」(Maslow)가 그의 慾求位階理論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自我와 自我의 表現對象과의 이러한 상호관계는 人間의 意識世界에서 뿐만 아니라 無意識世界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야코비」(Jolande Jacobi)는 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原型(archetype)을 “우리의 理性的인 이해를 초월하는 심오한 수수께끼”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는 그것은 모든 의식적인 經驗 이전에 존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의식적인 思考過程 만으로는 충분히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였다.

◇自我의 區分

앞에서 人間은 가장 기본적인 原型인 自我를 이해하고 그것에 구체적인 實體를 부여하기 위

해 노력하며 이러한 노력은 인간의 의식세계에서 뿐 아니라 無意識世界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했다. 여기서는 自我의 實체가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구체화됨으로써 사람마다 서로 다른 表出作用을 나타내게 되는지 살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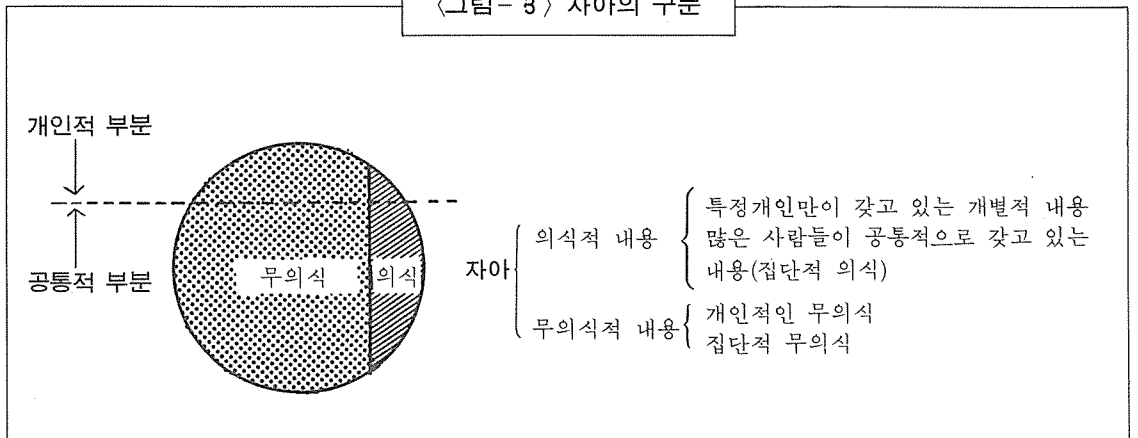
「프로이트」(Freud)는 乳兒期나 어린시절의 억압된 기억들이 沈澱되어 있는 狀態를 個人的인 無意識(individual unconscious)이라고 했다. 인간의 精神(psyche)은 이러한 기억들이 꿈, 몽상, 또는 자유로운 연상을 거쳐 의식속으로 다시 환기되어지기까지는 그들을 無意識속에 저장하고 있다. 「프로이트」의 제자인 「융」(Carl Jung)은 「프로이트」의 無意識의 概念에 반대하여 性的인 것만이 억압되는 것은 아니며, 무서운 경험이나 위협적인 사건도 억압을 통해서 잊게된다고 주장했다. 융은 이러한 억압들이 개인적인 無意識(personal unconscious)이라는 「콤플렉스」를 형성한다고 믿었다. 또한 그는 患者들의 꿈과 환상에서 또는 원시적인 神話나 傳說에서 나타나는 일치되는 동기들(persistent motifs)에 대한 연구를 통해 個人的 無意識의 理論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보편적인 「패턴」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個人的인 無意識에 人間과 人間의 原始的인 과거를 연결하는 하나의 보편적인 또는 集團的인 無意識(collective unconscious)을 결합하는 이론을 가

정하게 되었다. 그 속에는 어떠한 根源의이며 시간을 초월하는 精神的 「에너지」의 結節體들이 축적되어 있는데 그는 이것을 原型(archetype)으로 표현했다. 그의 集團無意識의 내용은 과거의 신비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고 人類의 反復的 經驗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칼·융」(Carl Jung)의 自我에 대한 개념은 먼저 意識世界와 無意識世界로 나누어지며 다시 無意識世界는 個人的인 無意識과 集團無意識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여기서 좀 더 발전시켜 보게 되면 의식세계 또한 특정 개인만이 갖고 있는 의식세계와 집단의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集團的 意識世界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자아를 이해하고 그것에 구체적인 實체를 부여하려는 노력은 이러한 自我의 모든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이 自我를 표현하려고 하는 대상에는 인간이 의식하고 있는 내용과 인간이 일상적으로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 동시에 表出된다. 여기서 일상적으로 의식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통적인 「패턴」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을 「칼·융」의 개념을 빌면 「集團的인 無意識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集團的인 無意識의 표현을 통해 우리는 과거와 연결되고 지구상의 완전히 분리된 두 지역일지라도 유사한 表出內容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自我의 표

〈그림-3〉 자아의 구분



현내용에는 無意識的인 내용이 포함되게 되지만 自我를 표현하려는 행위 그 자체는 의식적인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아의 표현대상을 자신의 身體로 부터 住宅, 마을 등의 環境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個人的 아이덴티티와 集團의 아이덴티티의 區分

지금까지 論議해 온 바와 같이 環境에서 나타나는 「아이덴티티」感은 인간이 環境속에 자신들의 自我를 表出함으로써 그러한 環境이 전달해 주는 의미들로부터 도출된다. 環境속에 表出되는 이러한 자아의 내용가운데서도 어떤 부분이 表出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갖게 되는데, 특정 개인만이 갖고 있는 내용이 表出되면 그러한 環境은 개인적인 「아이덴티티」를 부각시키게 되며, 반면에 意識的인든 無意識的인든 여러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내용이 表出되면 集團的인 「이미지」로 나타나게 되어 집단적인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自我의 내용가운데서 공통적인 부분은 집단적인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요소가 되며, 개인적인 부분은 개인적인 「아이덴티티」를 형성하는 요소가 된다. 그러나 「아이덴티티」를 추구하는 인간의 노력은, 물론 無意識的인 내용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주로 인간의 意識的인 努力에 의해 나타난다. 따라서 개인적인 「아이덴티티」란 自我의 구성요소 가운데서 특정한 개인이 의식하고 있는 개인적인 내용이 주된 구성요소가 되어 나타나는 것이며 이러한 「아이덴티티」가 環境에 表出되어 나타나게 되면 그 環境은 개별적인 「아이덴티티」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集團의 「아이덴티티」도 이와 마찬가지로 集團內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自我의 의식적 내용이 주된 구성요소가 되어 나타나게 되므로 개인적인 「아이덴티티」와는 완전히 獨立的인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개인의 「아이덴티티」와 집단의 「아이덴티티」가 이렇게 구분되어 질 때, 개인과 개인의 「아이덴티티」 또는 集團과 集團의 「아이덴티티」는 어떻게 구분되어지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와 앞에서 잠깐 언급된 「아이덴티티」의 類型 및 諸般 特性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된다.

◇結 論

本 研究에서는 인간과 물리적 環境과의 相互作用 關係에 있어 自我心理學에서 사용되는 「아이덴티티」 개념을 物理的 環境에 도입하여 인간의 「아이덴티티」와 環境적 「아이덴티티」와의 關係를 규명하고 그 가운데서 人間의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環境의 「아이덴티티」로 나타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心理學에서 사용되는 「아이덴티티」의 개념이 物理的 環境에서는 어떠한 意味를 갖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개념을 보여주는 「同一視」와는 어떻게 구분되어 지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物理的 環境에 적용되는 「메카니즘」을 自我의 表出行爲로 보고, 「융」(Carl Jung)의 자아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발전시켜 意識世界와 無意識世界를 다시 개인적인 부분과 공통적인 부분으로 나누어서 自我의 個人的 內容의 表出을 개인의 「아이덴티티」로, 自我의 共通的인 부분에 대한 表出을 集團의 「아이덴티티」로 구분하였다.

本 研究은 物理的 環境에 있어 「아이덴티티」問題 研究에 대한 序論的인 研究로서 本 研究을 바탕으로 하여, 앞으로 環境의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며, 環境의 「아이덴티티」가 갖는 제반 특성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기대된다.

(지면 사정으로 註와 참고문헌은 생략하였음)

하루앞선 과학기술

백년앞선 국가발전